

신임 경찰공무원의 안전의식과 안전행동 실천간의 관계

이인숙
창원대학교 간호학과

The Correlation of Safety Consciousness and Practice of Safety Behavior in A New Police Officer

Insook Lee

Department of Nursing,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신임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기간 중인 신임 경찰공무원 81명을 대상으로 안전의식과 안전행동 실천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경찰공무원들의 안전의식과 안전행동 실천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은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를 편의 표집하였으며, 90명이 표집되었고, 이 중 81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안전의식은 4.29점으로 높은데 반해 안전행동 실천은 48.71점으로 중간정도로 나타났다. 화재안전의식은 나이와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재난안전행동 실천은 성별과 거주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전의식은 안전행동 실천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들의 안전의식과 안전행동 실천을 파악해 보았으므로 본 연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공무원들의 안전의식과 안전행동 실천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기술적 측면과 제도적 측면의 지원과 더불어 이들을 위한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안전관련 교육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safety consciousness and practice of safety behaviors in new police officers and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The subjects were 81 new police officers who understood the purpose of this study and agreed to participat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using the SPSS 22.0 program.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the safety consciousness of subjects was as high as 4.29 points. On the other hand, practice of safety behavior was moderate at 48.71 points. Fire safety consciousness was found to be different according to age and education level, and environmental safety action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gender and residence. Safety consciousness showed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practice of safety behavior. Based on the resul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apply more effective and practical safety related education for police officers in addition to technical and institutional aspects in order to promote safety awareness and safety behavior practice.

Keywords : Police Officer, Safety, Consciousness, Behavior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의 급속한 산업발전과 그 부산물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는 안전문화에 대한 근본적이고 체계

적인 관심과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사고와 2015년 메르스 사태는 우리사회에 잠자고 있던 안전의식을 일깨워 주었고,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면 안된다는 안전의식에 대한 관심이 고조시켜 주었다[1-3]. 그동안 우리나라는 1990년 인천

*Corresponding Author : Insook Lee(Changwon National Univ.)

Tel: +82-55-213-3570 email: dobest75@changwon.ac.kr

Received June 2, 2017

Revised July 6, 2017

Accepted July 7, 2017

Published July 31, 2017

호프집 화재, 1994년 성수대교 붕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1999년 화성 씨 랜드 화재, 2003년 대구 지하철 사고, 2008년 이천 농동 창고 화재, 2014년 마우나리조트 사고 등 수 많은 재난을 겪어왔으며, 세월호 사고 이후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존의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총괄부서,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을 합쳐 재난안전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국민안전처의 신설(2014. 11월) 등 국민에게 안전한 사회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차원에서 다양한 대응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4].

이러한 많은 안전사고들의 원인으로 안전교육 미흡에 따른 안전의식의 부족이 지적되고 있으며[5-6], 안전사고 발생시 관계 공무원의 책임의식과 전문성, 안전의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7].

안전의식이란 학습을 통해 반복된 행위이기도 하지만 일상생활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그러나 안전의식과 안전의식의 실천에는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 되고 있으며, 안전에 대한 중요성과 예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나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 3, 6, 8].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주요한 업무인 경찰관의 안전의식과 안전행동 실천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경찰의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된 경찰의 고유 업무는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각종 위해와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9], 특히 천재지변, 폭풍우, 지진, 풍수해, 해일 등과 같은 자연적 재난과 폭발사고, 대형구조물의 붕괴등의 인위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기를 관리하는 것이다[9]. 특히 재난 등 안전사고 발생시 경찰의 활동은 피해의 발생을 예방·경감시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 적극적인 위기관리가 경찰의 주요 임무로[10] 재난발생이나 안전사고 발생시 사건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여 관리하므로[9] 경찰관들의 안전의식과 안전교육 및 안전행동 실천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민간경제연구원이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4년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의식수준은 100점 만점에 17점으로 2007년 조사에서 30.3점에 비하여 급격하게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11], 더구나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 중 안전사고에 의

한 사망은 수 년간 신생물에 의한 사망률과 순환기계통 질환에 의한 사망률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12], OECD 국가 중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률은 6위를 기록하고 있다[13].

이에 정부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개정(2014. 2. 7 시행)을 통해, ‘안전문화 진흥’을 신설하고 ‘안전지수 공표’를 추가하였다[14].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지수 제고를 위한 노력은 유치원부터 초·중·고 교육과정을 통한 자율적 안전교육의 형태로 반영되었으나, 재난안전보다는 교통안전에 치중하고 있다[2, 4]. 더욱이 안전의식과 관련하여 특수 직업군이 아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안전의식 수준을 측정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도되었는데 중학생을 대상으로 안전의식 측정척도가 개발되어[15] 안전의식 분야를 가정안전, 학교안전, 교통안전, 화재안전, 응급처치 분야로 구분한 바 있다. 소방방재청에서는 2007년 ‘국민안전의식지수(public safety consciousness index, 이하 PSCI)’를 개발하여 국민에게 공개하고[16], 매년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의식 측정도구로 사용해 왔으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측정한 기록은 없다[17]. 따라서 실제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집행해야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18] 특히 국민 개개인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한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경찰공무원들의 안전의식수준을 제고하고 안전행동의 실천을 함양하므로써 안전에 대한 대처 능력을 갖춘다면 안전사회 구현은 앞당겨질 것이다.

안전생활 실천행위는 안전한 습관, 태도 및 지식에 의해서 형성되는데[19], 기존연구들은 주로 유아를 비롯하여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고 [1-2, 4, 15, 20-23] 일부 연구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의식 및 안전생활 실천을 파악한 연구가 시행되었으나[3, 24-25], 안전분야 종사자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하고 있으며,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로서 개인의 안전보다는 국가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일한다. 이렇듯 경찰공무원 직무가 안전과 관련된 직무수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26] 경찰공무원의 안전의식과 안전행동 실천 등 안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이루어진 연구가

거의 없으므로 본 연구는 신입 경찰공무원의 안전의식과 안전행동 실천 정도를 파악하고, 향후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행동 실천 증진을 위한 전략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신입 경찰공무원의 안전의식과 안전행동 실천 정도를 살펴보고, 향후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행동 실천 증진을 위한 전략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 대상자의 안전의식과 안전행동 실천 정도를 파악한다.
- 2)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전의식과 안전행동 실천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연구 대상자의 안전의식과 안전행동 실천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신입 경찰공무원의 안전의식과 안전행동 실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찰조직에 입문하는 신입 경찰관으로 신입 경찰관을 위한 교육기관인 OO경찰학교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교육생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대상자를 편의표출하였다.

총 9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이중 무응답 항목이 있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한 9명을 제외하고 총 81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Cohen의 표본추출공식에 따른 표본수 계산 프로그램인 G power program 3.1을 이용하여 산출한 결과, 유의수준 α 는 .05, 효과크기를 .30, 검정력을 .80으로 하였을 때 상관관계에 필요한 표본수가 84명으로 산출되어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적절한 수준이었다.

2.3 연구도구

2.3.1 안전의식(Safety Consciousness, SC)

안전의식이란 일상생활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또한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지는 안전에 대한 인지도를 말하며[15], 본 연구에서 안전의식은 김혜원[15]이 중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안전의식 척도 중 가정안전, 교통안전, 응급처치, 화재 안전의 4개 분야에 대한 의식을 의미한다.

이 도구는 가정안전 의식 13문항, 교통안전 의식 12문항, 응급처치 의식 10문항, 그리고 화재안전 의식 8문항의 총 4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김혜원[15]의 도구개발당시 3점 척도이었으나 이후 이희택[24]의 연구에서 5점 등간척도로 수정되어 이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5점 척도로 구성된 Likert 척도로 ‘매우 그렇다’(5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안전의식이 높은 것이다.

도구개발당시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혜원[15]의 연구에서의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가정안전 .76, 교통안전 .83, 응급처치 .78, 화재안전 .72이었고, 일 지역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이희택[24]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가정안전 .45~.84, 교통안전 .60~.92, 응급처치 .74, 화재안전 .76~.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가정안전 .85, 교통안전 .86, 응급처치 .82, 화재안전 .83, 전체적인 안전의식은 .93이었다.

2.3.2 안전행동 실천

(Practice of Safety Behavior, PSB)

안전행동 실천이란 안전생활실천 행위의 정도로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와 상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의 반복적인 수행이나 행동·습관 등을 의미한다[27].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안전의식을 조사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에서 개발한 개인의 행태를 측정하는 국민안전의식지수(PSCI I)의 문항을 이용하였다[16].

본 도구는 일상사고, 교통사고를 포함한 생활안전 영역 17개, 산업재해, 폭발, 가스, 전기사고를 포함하는 소방안전 영역 13개, 자연재난, 응급처치를 포함하는 재난안전 영역 15개 문항 등 총 4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요인별 점수(생활안전 51점, 소방안전 39점, 재난안전 30점)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산출하게 된다. 생활안전 측정 문항의 지수산정은 5점 척도 중 ‘매우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0점, ‘그저 그렇다’는 1점, ‘그렇다’는 2점, ‘매우 그렇다’는 3점을 부여하여 함께 51점(최저 0점)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지

수점수를 제시하였다. 소방안전 측정 문항의 지수산정은 5점 척도 중 ‘매우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0점, ‘그저 그렇다’는 1점, ‘그렇다’는 2점, ‘매우 그렇다’는 3점을 부여하고, 소화기 사용법 연습경험 유무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없다’는 0점, ‘있다’는 3점을 부여하여 합계 39점(최저 0점)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지수산점수를 제시하였다. 재난안전 측정문항의 지수산정은 3점 척도 중 ‘아니다’는 0점, ‘그저 그렇다’는 1점, ‘그렇다’는 2점을 부여하고 응급구조 교육경험과 재난 행동요령 교육경험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없다’ 0점, ‘있다’ 2점을 부여하여 합계 30점(최저 0점)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지수산점수를 제시하였다.

개발당시 45문항의 3개 영역에 대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생활안전 .86, 소방안전 .88, 재난안전 .89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생활안전 .82, 소방안전 .71, 그리고 재난안전 .84, 전체적인 안전행동 실천은 .90이었다.

2.4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OO경찰학교에서 신임 경찰공무원으로 배치된 기본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교육생을 대상으로 2015년 8월부터 10월 말까지 시행하였다. 자료수집 전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승인번호 : 1040271-201507-HR-027)과 교육기관의 허락을 받은 후 시행하였다. 한명의 자료수집원이 연구의 주제와 목적, 방법을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기로 한 대상자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서면동의를 받은 후 자가 기입 방식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각자 용이한 시간에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작성된 설문지는 자료수집원이 회수 봉투에 넣어서 회수하였다.

2.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자 소속기관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승인번호 : 1040271-201507-HR-027)을 받은 후 교육기관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으며, 신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공무원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교육생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자발적 참여를 동의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자료수집원은 대상자들에게 연구참여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설문지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과 연구 참여자의 익명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에 서명하게 한 후 자가

보고형 설문지를 제공하여 충분히 응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 기입하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자가보고식 작성 방법을 이용하여 대상자 스스로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불투명한 봉투에 담아 밀봉을 하게 한 뒤 제출하도록 하였다.

2.6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 하여 IBM SPSS 22.0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수준에서 다음의 통계방법으로 분석하였다.

-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안전의식, 안전행동 실천 정도를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2)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안전의식과 안전행동 실천 정도의 차이에 대한 분석은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세 그룹 이상의 독립변수에 대해서는 Scheffe와 Dunnett T3로 사후검정하였다.
- 3) 연구대상자의 안전의식과 안전행동실천 정도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6.02세(±5.21)로 25~29세가 51.9%로 가장 많았고, 여성이 88.9%, 미혼이 96.3%, 대학교졸업 이상이 77.8%로 가장 많았다. 거주 지역은 서울·광역시 지역(49.4%)과 중소지방도시(40.7%)가 대부분이었다. 사고경험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13.6%, 경험이 없는 사람이 86.4%로 나타났다(Table 1).

3.2 대상자의 안전의식과 안전행동 실천

대상자의 안전의식과 안전행동 실천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Table 2), 전체적인 안전의식의 평균점수는 4.29점(±0.44)으로 나타났다. 안전의식의 항목별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화재에 대한 안전의식이 평균 4.62점(±0.45)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교통에 대한 안전의식(평균 4.34±0.52), 가정생활에 대한 안전의식(평균 4.24±0.54), 응급처치에 대한 안전의식(평균 3.90±0.63)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안전행동 실천 점수는 48.71점(±15.50)으로 나타났으며, 안전행동 실천의 항목별 점수는 생활안전 행동이 57.45점(±14.79)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환경재난안전 행동(47.13±21.89), 소방안전 행동 (41.03±17.22)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81)

Characteristics	Categories	Respondents	%
Gender	Male	9	11.1
	Female	72	88.9
Age (year)	Mean±SD	26.02±5.21	
	<25	31	38.3
	25-29	42	51.9
	≥30	8	9.9
Marital status	Single	78	96.3
	Married	3	3.7
Educational Level	≤High school	18	22.2
	≥ Bachelors	63	77.8
Residence	Metropolitan city	40	49.4
	Local city	33	40.7
	Rural area	8	9.9
Accident experience	Yes	11	13.6
	No	70	86.4

Table 2. Safety consciousness and practice of safety behavior of participants (n=81)[†]

Variables	Categories	Mean±SD	Range
Safety consciousness	Fire	4.62±0.45	2.75-5.00
	House	4.24±0.54	3.08-5.00
	Traffic	4.34±0.52	3.17-5.00
	Emergency care	3.90±0.63	2.20-5.00
	Total	4.29±0.44	3.08-5.00
Practice of life safety behavior	Life safety action	57.45±14.79	27.45-100
	Fire prevention action	41.03±17.22	2.56-76.92
	Environmental Safety Action	47.13±21.89	6.67-90.00
	Total	48.71±15.50	16.16-88.97

[†] Missing data excluded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전의식과 안전행동 실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전의식과 안전행동 실천의 차이를 indepent t-test와 one-way ANOVA를 통해 검정하였으며, ANOVA 검정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 Scheffe를 이용하여 사후검정하였으며, 나이에

Table 3. Safety consciousn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8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Total SC		Fire SC		House SC		Traffic SC		Emergency care SC	
			Mean ±SD	t/F (p)	Mean ±SD	t/F (p)	Mean ±SD	t/F (p)	Mean ±SD	t/F (p)	Mean ±SD	t/F (p)
Gender	Male	9(11.1)	4.02 ±0.63	-1.73 (.088)	4.22 ±0.79	-1.57 (.158)	4.06 ±0.64	-1.09 (.279)	4.09 ±0.63	-1.44 (.154)	3.78 ±0.62	-0.61 (.547)
	Female	72(88.9)	4.32 ±0.41		4.66 ±0.37		4.27 ±0.52		4.37 ±0.50		3.91 ±0.64	
Age (year)	<25 ^a	31(38.3)	4.37 ±0.32	1.64 (.202)	4.78 ±0.25	4.98 (.009)	4.37 ±0.49	2.07 (.133)	4.34 ±0.39	0.17 (.840)	4.02 ±0.62	0.88 (.419)
	25-29 ^b	42(51.9)	4.19 ±0.53		4.47 ±0.54	a>b [‡]	4.12 ±0.58		4.32 ±0.61		3.83 ±0.64	
	≥30 ^c	8(9.9)	4.42 ±0.32		4.73 ±0.29		4.34 ±0.43		4.44 ±0.47		3.79 ±0.70	
Marital status	Single	78(96.3)	4.28 ±0.45	-0.38 (.705)	4.62 ±0.45	-0.03 (.980)	4.23 ±0.55	-0.71 (.479)	4.34 ±0.52	-0.35 (.725)	3.89 ±0.63	-0.28 (.780)
	Married	3(3.7)	4.38 ±0.45		4.63 ±0.38		4.46 ±0.28		4.44 ±0.49		4.00 ±0.78	
Educational Level	≤High school	18(22.2)	4.37 ±0.34	0.92 (.363)	4.81 ±0.24	3.01 (.004)	4.34 ±0.51	0.84 (.403)	4.33 ±0.46	-0.11 (.911)	4.00 ±0.67	0.77 (.445)
	≥ Bachelors	63(77.8)	4.26 ±0.47		4.56 ±0.48		4.22 ±0.55		4.34 ±0.53		3.87 ±0.63	
Residence	Metropolitan city	40(49.4)	4.35 ±0.40	1.38 (.257)	4.63 ±0.36	2.90 (.061)	4.34 ±0.48	1.26 (.291)	4.38 ±0.51	0.33 (.717)	3.95 ±0.56	0.23 (.794)
	Local city	33(40.7)	4.28 ±0.40		4.70 ±0.36		4.16 ±0.53		4.32 ±0.49		3.85 ±0.70	
	Rural area	8(9.9)	4.04 ±0.72		4.28 ±0.86		4.10 ±0.79		4.23 ±0.69		3.85 ±0.76	
Accident experience	Yes	11(13.6)	4.17 ±0.46	-0.90 (.372)	4.48 ±0.47	-1.09 (.280)	4.12 ±0.57	-0.82 (.410)	4.20 ±0.49	-1.00 (.322)	3.73 ±0.52	-0.97 (.337)
	No	70(86.4)	4.31 ±0.44		4.64 ±0.44		4.26 ±0.54		4.36 ±0.52		3.93 ±0.65	

SC = Safety Consciousness; [†] Missing data excluded, [‡] Post hoc test : Dunnett T3

Table 4. Practice of safety behavior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8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Total PSB		Life safety action		Fire prevention action		Environmental Safety Action	
			Mean±SD	t/F (p)	Mean±SD	t/F (p)	Mean±SD	t/F (p)	Mean±SD	t/F (p)
Gender	Male	9(11.1)	58.16±14.26	1.85 (.068)	61.22±14.31	0.81 (.421)	47.44±15.63	1.11 (.270)	62.22±19.22	2.25 (.027)
	Female	72(88.9)	47.61±15.36		56.97±14.90		40.31±17.34		45.19±21.57	
Age (year)	<25	31(38.3)	47.63±15.52	0.12 (.889)	55.34±14.33	0.55 (.578)	38.88±17.07	0.43 (.652)	48.00±22.70	0.07 (.933)
	25-29	42(51.9)	49.47±15.82		59.06±14.58		42.67±17.11		46.26±22.19	
	≥ 30	8(9.9)	49.00±15.60		57.35±18.45		40.66±20.05		47.50±19.50	
Marital status	Single	78(96.3)	48.93±15.46	0.61 (.544)	57.68±14.55	0.69 (.491)	41.26±17.22	0.61 (.543)	47.28±22.12	0.31 (.762)
	Married	3(3.7)	43.34±19.05		51.63±23.23		35.04±19.58		43.33±17.64	
Educational Level	≤ High school	18(22.2)	47.18±17.79	-0.46 (.649)	53.92±15.00	-1.15 (.253)	37.75±17.59	-0.92 (.362)	49.22±25.37	0.44 (.660)
	≥ Bachelors	63(77.8)	49.14±14.93		58.48±14.69		41.98±17.14		46.56±21.03	
Residence	Metropolitan city ^a	40(49.4)	47.11±13.98	3.06 (.053)	56.67±13.22	1.48 (.233)	41.09±16.20	2.21 (.116)	42.89±21.51	3.76 (.028)
	Local city ^b	33(40.7)	47.45±16.98		56.31±16.89		38.14±17.48		47.58±21.86	
	Rural area ^c	8(9.9)	61.20±11.92		65.93±11.85		52.24±18.64		65.42±15.11	
Accident experience	Yes	11(13.6)	44.58±15.29	-0.85 (.399)	57.06±17.25	-0.09 (.929)	31.28±10.73	-1.95 (.055)	45.45±18.52	-0.27 (.786)
	No	70(86.4)	49.26±15.56		57.51±14.55		42.42±17.57		47.40±22.50	

PSB = Practice of Safety Behavior; [†] Missing data excluded

다른 안전의식과 안전행동 실천에서 등분산하지 않은 변수에 대해 Dunnett T3로 사후검정하였다(Table 3, Table 4).

결과 대상자의 안전의식은 화재에 대한 안전의식이 나이(F=4.98, p=.009)와 교육수준(t=3.01, p=.004)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사후검정 결과 나이가 25세미만인 경우가 25~29세인 경우보다 화재에 대한 안전의식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안전행동 실천은 환경재난안전 행동이 성별

(t=2.25, p=.027)과 거주지역(F=3.76, p=.028)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사후검정 결과 거주지역이 농촌지역인 경우가 서울·광역시 지역보다 환경재난안전 행동 실천 정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4 안전의식과 안전행동 실천의 관계

대상자의 안전의식과 안전행동 실천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하였다(Table 5).

Table 5. Correlation of safety consciousness and practice of safety behavior (n=81)[†]

Variables	Fire SC	House SC	Traffic SC	Emergency care SC	Total SC	Life safety action	Fire prevention action	Environmental Safety Action	Total PSB
Fire SC	1								
House SC	.62 (<.001)	1							
Traffic SC	.60 (<.001)	.62 (<.001)	1						
Emergency care SC	.41 (<.001)	.57 (<.001)	.59 (<.001)	1					
Total SC	.78 (<.001)	.84 (<.001)	.85 (<.001)	.82 (<.001)	1				
Life safety action	.15 (.206)	.36 (.001)	.55 (<.001)	.42 (<.001)	.45 (<.001)	1			
Fire prevention action	.23 (.042)	.35 (.002)	.46 (<.001)	.42 (<.001)	.48 (<.001)	.61 (<.001)	1		
Environmental Safety Action	.04 (.711)	.29 (.013)	.24 (.032)	.46 (<.001)	.34 (.004)	.57 (<.001)	.57 (<.001)	1	
Total PSB	.15 (.199)	.38 (.001)	.47 (<.001)	.50 (<.001)	.49 (<.001)	.82 (<.001)	.84 (<.001)	.88 (<.001)	1

SC = Safety Consciousness; PSB = Practice of Life Safety Behavior; [†] Missing data excluded

분석결과 안전의식은 안전행동 실천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49, p<.001$).

하부영역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전의식과 안전행동 실천의 각 항목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화재에 대한 안전의식은 소방안전행동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r=.23, p=.042$), 가정생활에 대한 안전의식은 생활안전행동($r=.36, p=.001$), 소방안전행동($r=.35, p=.002$), 환경재난안전행동($r=.29, p=.013$)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교통에 대한 안전의식은 생활안전행동($r=.55, p<.001$), 소방안전행동($r=.46, p<.001$), 환경재난안전행동($r=.24, p=.032$)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응급처치에 대한 안전의식은 생활안전행동($r=.42, p<.001$), 소방안전행동($r=.42, p<.001$), 환경재난안전행동($r=.46,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4. 논의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성숙된 안전의식과 안전문화라고 할 수 있으며[5], 안전에 대한 의식은 안전행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1, 3, 6, 22, 25] 본 연구는 신입 경찰공무원의 안전의식과 안전행동 실천 정도를 파악하고 안전의식과 안전행동 실천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연구의 함의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한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전체적인 안전의식은 평균 4.29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경찰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의식에 관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할 수 없으나 대학생들의 안전의식이 높게[20] 또는 중간정도로 보고되었으며[4, 6, 21], 일지역 성인들의 안전의식 정도가 전체 4.17점[3]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의 경찰공무원들의 안전의식이 일반 성인보다는 다소 높으며 대학생보다는 높거나 유사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화재에 대한 안전의식이 평균 4.62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교통에 대한 안전의식(평균 4.34점), 가정생활에 대한 안전의식(평균 4.24점), 응급처치에 대한 안전의식(평균 3.90점)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지역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24] 화재안전의식이 가장 높고 교통안전의식, 가정안전의식, 응급처치의식의 순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였

다. 또한 소방분야 종사자들의 소방안전의식의 경우 평균 4.2점, 행정직 공무원들의 경우 평균 3.59점으로 나타나[6] 본 연구에서의 경찰공무원들의 소방안전의식에 해당하는 화재에 대한 안전의식이 평균 4.62점으로 소방분야 종사자들의 소방안전의식 점수보다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안전행동 실천의 경우 대상자의 전체적인 안전행동 실천 점수는 100점을 기준으로 48.71점으로 중간이하의 점수로 나타나 안전의식은 비교적 높음에 반해 안전행동 실천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박신영과 어용숙[3]의 연구결과 연구 대상자의 안전생활실천 정도는 전체 3.58점으로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나 안전의식은 높음에 반해 안전생활 실천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소방분야 종사들을 대상으로 안전의식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홍영호[6]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때 소방분야 종사들의 안전의식에 비해 안전행동의 실천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21]와 성인[24]의 경우에도 안전 실천행위 점수는 안전의식에 비해 낮았으며,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안전실천 점수도 안전의식보다 낮은 결과를 보여 [1-2, 4, 21-23, 28] 본 연구에서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안전행위 실천 수준을 파악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안전의식에 비해 안전실천행위 점수가 낮은 것은 안전의식이 안전행동으로 옮겨지지 못한 결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특히 안전행동 실천 중 생활안전 행동이 57.4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환경재난안전 행동이 47.13점, 소방안전 행동이 41.03점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박신영과 어용숙[3]의 연구결과 안전행동 실천은 생활안전행동, 환경안전행동, 시설안전행동, 화재예방행동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반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국민안전의식지수로 안전실천 정도를 평가한 이옥철[4]의 연구결과에서 생활안전, 소방안전, 재난안전의 순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었다. 홍영호[6]의 연구결과 생활안전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행정직 공무원들이 안전의식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국민의 재난과 화재 등 안전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경찰공무원의 안전행동 실천을 높이기 위한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전의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나이가 25세미만인 경우가 25~29세인 경우보다 화재에 대한 안전의식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졸업이하인 경우가 대학교 졸업이상인 경우보다 화재에 대한 안전의식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지역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24] 응급처치의식은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와 학력이 대졸이상인 경우가 고졸이하보다 가정안전의식과 교통안전의식이 높게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화재안전의식이 나이와 교육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한편 이희택[24]의 연구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화재안전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생의 경우 여학생의 안전의식이 남학생보다 높았고[23, 28] 고등학생의 안전의식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조사되었으며[2],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윤영미 등[22]의 연구결과에서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안전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환경재난안전행동 실천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안전의식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안전의식의 성별차이를 비롯하여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에 대해 추후 연구에서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환경재난안전 행동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주지역이 농촌지역인 경우가 서울·광역시 지역보다 환경재난안전행동 실천 정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이희택[24]의 연구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안전실천 행위가 높았고,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윤영미 등[22]의 연구결과에서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안전생활 실천행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반면,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박신영과 어용숙[3]의 연구결과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환경안전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선행연구들에서는 나이[3, 24], 학력[3, 24], 주거형태[24]에 따라 안전생활실천 행위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의 경우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선행연구를 찾을 수가 없어 직접 비교하여 논할 수는 없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여러 반복연구를 통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전행

동 실천의 차이를 밝혀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대상자의 안전의식은 안전행동 실천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의식이 높으면 안전행동 실천도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교통에 대한 안전의식과 생활안전행동과의 관계가 가장 높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재에 대한 안전의식은 소방안전행동과, 가정생활에 대한 안전의식과 교통에 대한 안전의식 및 응급처치에 대한 안전의식은 생활안전행동, 소방안전행동, 환경재난안전행동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자가 달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안전실천 정도를 조사한 연구결과[23], 초등학생의 안전실천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안전의식 수준이 가장 높은 설명력을 나타내었고, 김상엽[20]의 연구결과 대학생들의 안전의식은 안전실천 행위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전생활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응급처치안전의식[3, 21, 24]와 교통안전의식[20], 화재안전의식[20]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사고에 대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4]. 즉,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행동을 해야 하며, 이는 안전한 습관, 태도 및 지식에 의해 형성된다. 안전사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가항력적이며 우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결코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불안정한 행위와 조건이 선행되어서 일어난다. 그리고 안전의식의 함양은 안전행동 향상에 기여하는 습관, 태도 및 지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15, 20]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8장 안전문화진흥(신설 2013. 8. 6) 제66조의 2에 의거하면[14],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 개발 및 보급, 안전문화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안전관련 통계 현황 관리·활용 및 공개,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등의 다양한 안전문화 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안전사고 발생시 재난발생 사건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여 범을 집행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직무상 책임이 있는 경찰공무원들의[9] 안전의식과

안전행동 실천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안전교육 등의 전략개발과 시행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안전의식과 안전환경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공무원의 역할도 재난관리와 통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때로는 소방관, 때로는 준의료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종합교육이 필요할 것이다[9]. 특히 재난관리를 위한 교육훈련제도 개선을 위한 일 연구에서[7] 재난대응 교육 중 현장대응의 표준행동절차 과정에 대한 교육과 현장인력에 대한 특수교육 중 경찰재난대응교육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앙경찰학교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34주(총1,190시간)의 기간 중 생활안전과 관련하여 실무교육 시간(984시간) 중 55시간(5.6%)이 다루어지며, 일반소양 및 기타 61시간 중 건강관리 및 응급처치가 일부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29]. 그러므로 경찰공무원들의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안전행동 실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찰공무원의 교육과정에서도 안전 및 재난과 관련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나아가 경찰공무원의 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받기 전후의 안전의식과 안전행동 실천을 분석해보는 추후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특정 시점에서 경찰학교에 입소하여 교육 중인 배치전 신입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로서 연구대상의 대표성이 확보되지 못했으므로 연구결과를 확대할 수 없는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공무원의 안전의식과 안전행동 실천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대표성 있는 연구대상의 표집을 통한 추후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여 보다 실질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신입 경찰공무원의 안전의식과 안전행동 실천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첫째 신입 경찰공무원들의 안전의식은 평균 4.29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안전행동 실천 점수는 100점 기준 48.71점으로 중간이하의 점수로 나타나 안전의식은 높음에 반해 안전행동 실천은 중간이하로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전의식은 화재에 대한 안전의식이 나이와 교육수준에 따라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전행동 실천은 환경재난안전 행동이 성별과 거주지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안전의식과 안전행동 실천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안전의식은 안전행동 실천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안전의식과 안전행동 실천을 조사한 연구가 적어 연구결과의 논의에 많은 한계가 있으며,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수도 81명으로 제한적이므로 일반화할 수 없는 제한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담당하는 경찰공무원들의 안전의식과 안전행동 실천을 파악한 기초연구로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공무원들의 안전의식과 안전행동 실천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기술적 측면과 제도적 측면의 지원과 더불어 이들을 위한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안전관련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References

- [1] S. Y. Kim, "Safety awareness and safety practice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y*, vol. 13, no. 2, pp. 279-89, 2015. DOI: <https://doi.org/10.14400/JDC.2015.13.2.279>
- [2] S. H. Kim, C. T. Kim, "Disaster safety education and safety awareness of high school students after the Sewol ferry incident", *Korean Journal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vol. 20, no. 2, pp. 51-64, 2016. DOI: <https://doi.org/10.14408/KJEMS.2016.20.2.051>
- [3] Y. S. Park, Y. S. Eo, "A study on the safety awareness and safety practice behavior of adult learners: Focusing on civic safety culture college in Changwon city",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vol. 27, no. 6, pp. 1619-1627, 2015. DOI: <https://doi.org/10.13000/JFMSE.2015.27.6.1619>
- [4] O. Lee, "Effects of safety education on the Public Safety Consciousness Index(PSCI) and self-efficacy of the emergency response in university students", *Korean Review of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vol. 10, no. 10, pp. 1-18, 2014.
- [5] B. J. Yi, J. H. Park, "An exploratory study on cultural cognition structure of Korean traffic culture",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Studies*, vol. 9, no. 3, pp. 45-61, 2014. DOI: <https://doi.org/10.15815/kjcaes.2014.9.3.45>
- [6] Y. H. Hong, "A study on the safety consciousness of fire-fighting sector worker: Based on fire-fighting sector workers in Chung-nam",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vol. 29, no. 2, pp. 64-72, 2015. DOI: <https://doi.org/10.7731/KIFSE.2015.29.2.064>

- [7] J. H. Lee, S. I. Ryu, "Curriculums issues to improve the disaster management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s: Focused on AHP analysis of national fire service ccademy", *Korean Review of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vol. 10, no. 7, pp. 99-118, 2014.
- [8] K. Kim, D. H. Lee, "Status of researchers' safety consciousness and it's improvement measures in government-supported research institutes", *Journal of Korea Safety Management Science*, vol. 14, no. 1, pp. 15-22, 2012.
DOI: <https://doi.org/10.12812/ksms.2012.14.1.015>
- [9] D. K. Park, "The empirical study on policeman' consciousness of the emergency management",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Review*, 19, pp. 1-24, 2005.
- [10] Police General School, "Life safety practice", 2004.
- [11] Hyundai Research Institute, "Safety awareness status and policy, executive summary", Issue Report, pp. 14-40, 2014.
- [12] Statistics Korea, "Death statistics 2014", <http://kostat.go.kr/>, 2014.
- [13] OECD, "Health at a glance 2013", <http://www.oecd.org/els/health-systems/Health-at-a-Glance-2013.pdf>.
- [14]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Emergency resources management act", Act No.11994, 06. Aug, 2013. <http://www.law.go.kr/main.html>.
- [15] H. W. Kim,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measuring scale of safety consciousn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2002.
- [16]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Development of index of change model and the safety awareness of action", pp. 1-75, 2007.
- [17] National Disaster Information Center, "2014 disaster anniversary", <http://www.safekorea.go.kr/>
- [18] S. Lim, "A consensus approach on disaster safety education", *Disaster and Safety*, vol. 16, no. 3, pp. 2-3, 2014.
- [19] M. S. Lee, "Students', teachers', and parents' safety concerns affecting students' safety behaviors of elementary schools in Korea",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vol. 22, no. 4, pp. 41-56, 2005.
- [20] S. Y. Kim, "Safety awareness and safety practice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2, pp. 279-289, 2015.
DOI: <https://doi.org/10.14400/JDC.2015.13.2.279>
- [21] H. C. Lee, Y. S. Jang, E. Y. Choi, "Actual survey on the safety conscious practice and first aid knowledge of health department and non-health department female college students (oriented to Gwangju a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Clinical Electrophysiology*, vol. 10, no. 2, pp. 43-50, 2012.
DOI: <https://doi.org/10.5627/KACE.2012.10.2.043>
- [22] Y. M. Yoon, K. S. Sung, E. J. Kim, "Safety consciousness and safety practicing behavior and perception about safety management service system of university campus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Living Environmental System*, vol. 21, no. 6, pp. 1033-1042, 2014.
DOI: <https://doi.org/10.21086/ksles.2014.12.21.6.1033>
- [23] Y. M. Lee, "Safety-practice and its related factors among elementary students in a rural area",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0, no. 5, pp. 1115-1125, 2009.
- [24] H. T. Lee, "The effects on safety life practicing behavior by safety consciousness and safety awareness", Unpublished dissertation, Daegu Haany University, Daegu, 2010.
- [25] J. Y. Bae, S. T. Chung, H. S. Sohn, S. R. Yeom, H. J. Park, S. I. Cho, "A study on the safety awareness and behavior of the citizens of Busan",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vol. 8, no. 1, pp. 197-214, 2012.
- [26] W. S. Lim, "Social exchange and police officers' safety behavior",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Review*, 29, pp. 255-303, 2007.
- [27] H. S. Kim, "The parents consciousness and performance about the infants safety and home safety circumsta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2006.
- [28] H. J. Im, "Safety awareness and safe practices related to the analysis of the elementary scho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Gumi, 2005.
- [29] C. S. Bae, "The analysis of the curriculum for training newly recruited korean police officers and its policy implications",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e and Security Studies*, vol. 12, no. 2, pp. 115-138, 2015.
DOI: <https://doi.org/10.25023/kapsa.12.2.201508.115>

이 인 숙(Insook Lee)

[정회원]



- 2001년 2월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사)
- 2005년 2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8년 8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2년 9월 ~ 현재 : 국립창원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간호교육, 암환자 간호, 삶의 질, 간호중재